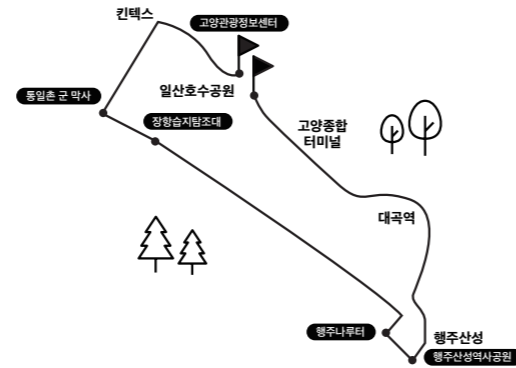


## 고양시에서 즐기는 평화여행 DMZ 평화의 길 ~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2021년 11월, 드디어 고양시 DMZ 평화의 길이 열렸다. 60여 년간 굳건했던 철책 철거가 가장 먼저 시행되었던 곳, 고양에서 남북화해의 발자취를 따라 평화통일을 소망하는 여행을 시작해보면 어떨까.

글. 사진. 이민숙(고양 관광서포터즈)



DMZ 평화의 길 도보구간

### 가까이에서 마주한 평화의 길

6·25 전쟁을 멈추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8년이 지난 지금, 남과 북은 전쟁 복구와 경제발전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던 시간을 지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평화통일을 꿈꾸고 있다. 오늘은 평화의 상징 DMZ 평화의 길과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으로 평화의 발자취를 찾아 떠났다.

DMZ 평화의 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양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인 평화 테마길로, 인천 강화도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총 길이가 무려 524km에 이른다. 그중 고양시를 포함한 일부 구간이 2021년 11월 임시 개방되었다.

DMZ 평화의 길 고양 코스는 정발산역 고양관광정보센터에서 출발하여 행주산성 역사공원, 장항습지 탐조대, 통일촌 군 막사 등을 돌아보는 코스로, 총 길이는 3.5km의 도보 구간을 포함하여 29.5km다. 관람객들은 약 3시간 30분 동안 탐방하며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고양관광정보센터에서 출발한 시티투어 버스는 약 15분 만에 행주산성 역사공원에 도착한다. 이곳은 군 철책선이 가장 먼저 걷힌 곳으로, 2012년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현재는 고양시민들의 대표적인 쉼터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북한 간첩의 침입을 경계하던 군 초소 행호정은 이제 한강하구의 기수 현상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 DMZ의 축소판, 장항습지

DMZ 평화의 길 두 번째 코스로 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니 눈앞에 지하도가 나타났다. 자유로 아래를 이렇게 걸을 수 있다고 상상이나 했을까? 손전등에 의지하여 발걸음을 옮기면 터널 곳곳에 그려진 장항습지의 동식물들이 반긴다. 장항습지는 고양시 신평동, 장항동 법곳동에 걸쳐 있는 한강하구 습지로 2021년 5월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었다. DMZ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장항습지는 선버들 군락지와 말뚝게 서식지로 유명하며 큰기러기, 재두루미, 저어새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철새들의 도래지이다. 한편, 장항습지는 DMZ 평화의 길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방문할 수 있다.

장항습지 탐조대에 오르면 탐조대 좌우로 자유로와 맞닿은 습지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다. 바로 언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을 뿐인데 정전 후 68년간 일반 시민들에게 금남의 땅이 되었으니 말이다. 이날 탐조대에서는 생태해설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장항습지의 동식물에 대해 배우고, 평화 열쇠고리도 만들어볼 수 있었다.

### 평화를 염원한 다른 듯, 같은 공간

이후, 장항 막사에서 통일촌 군 막사까지 약 3km의 도보 구간이 시작되었다. 평화의 길 조성으로 개방된 구역이다. 처음에는 군사 경계 때문에 이중철책이 쳐져 있었으나, DMZ 평화의 길이 조성되면서 생태계 보호를 위한 바깥쪽 철책을 제외하고 모두 제거되었다.

DMZ 평화의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또 다른 지하터널이 나타난다. 이 터널은 실제 군사들이 사용했던 군용 터널로, 벽 곳곳에 훈련 흔적이 남아있다. 그 누구보다 조국의 평화를 염원했을 군인들의 흔적을 짚으며 통일촌 군 막사에 도착했다. 통일촌 군 막사는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실제 군인들이 사용하던 기지로, 2022년 하반기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통일촌 군 막사를 마지막으로 DMZ 평화의 길 고양 코스는 끝이 난다. 다음날 고양시의 또 다른 평화여행지인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은 고양시청 통합예약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해야 방문 가능하다. 1시간 30분가량 문화관광해설사의 가이드 투어가 진행되는 이곳은 실제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 전까지 거주하던 곳으로, 가구는 물론 그릇 하나하나에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의 흔적이 남아있다.

사저 기념관은 마당을 사이에 두고 사랑채와 안채로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 내외의 생활공간은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하였고, 마당 지하로 이어지는 지하 공간은 기념관으로 변신하여 민주화와 평화에 앞장섰던 발자취를 소개한다. 또 노벨평화상 기념주화와 엽서도 전시되고 있다.

DMZ 평화의 길을 시작으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까지 함께했던 고양시 평화여행은 통일이 가져다줄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한다.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이 된 곳, 소망과 염원의 길을 함께 걸어보자. 🇯🇵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